

의 사실과 칼럼 366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언론사별 대북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지원에 대한 반대가 찬성에 비해 많았고, 한겨레와 서울신문은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의 빈도가 동일하였다. 반대의 주된 이유로는 북한정부태도에 대한 불만,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한국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시기별 대북지원의 보도내용은, 김영삼 정부(1993-1997)와 노무현 정부(2003-2005. 6) 시기에는 대북지원에 대한 찬성이 반대에 비해 많았으나, 김대중 정부(1998-2002) 시기에는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4$). 또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은 남북한 정세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식량 지원, 재해지원과 같이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북지원의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전력, 경제협력과 같이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았다($p=0.000$). 특히 보건의료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반대의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결론: 대북보건의료지원에 있어서 여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결과는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며, 지원의 근거로 인도주의적 측면과 함께 실용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지원원칙과 방식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kshpa-7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김현철^{1),2)}, 권순만²⁾

1)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2004년 12월 담배가격 500원 인상 조치는 그동안 실시했던 담배 가격 규제 중 가장 인상폭이 큰 것으로, 이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과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며, 청소년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조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부천, 광주, 포항과 그 주변의 읍면지역에 있는 15,310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비율, 남 / 여 비율,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 실업계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대상 학교를 선정 하였다.

설문은 보건교사를 통해 각 학교에 배포된 설문지를 청소년이 자기기입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 도구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한 사항, 흡연 관련 특성, 담배가격 인상전후 흡연 양태 변화 등이 포함되었고, 사전에 약 5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약 30명에게 사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여 설문의 완성도를 높였고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 -test를 실시하였으며, 탄력성 추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은 흡연 청소년의 11.7%가 담배를 끊도록 하였고, 20.5%가 흡연량을 줄이도록 하였다.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는 여학생에게 높은 편이어서 여자의 흡연량은 26.5%가 줄어 19.7%의 남자보다 효과가 컸으며, 중학생은 남녀모두 흡연량이 30%이상 줄어들어 고등학생에 비해 영향이 더 큰 집단이었다. 담배 가격 인상이 금연에 계기가 되었냐는 질문에는 26.47%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 하였으며, 흡연량을 줄인 학생 중에서는 36.8%가 '그렇다' 고 답하였다.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생각 변하지 않음	21 (18.9)	15 (25.4)	70 (21.2)	30 (24.6)	24 (13.3)	27 (10.4)	17.6	21.5	19.4	
생각은 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함	33 (29.7)	8 (13.6)	133 (40.3)	33 (27.0)	79 (43.6)	125 (48.1)	36.4	26.2	31.8	
시도하였으나 실패	20 (18.0)	7 (11.9)	51 (15.5)	22 (18.0)	33 (18.2)	49 (18.8)	17.5	15.5	16.6	
줄여피우게 됨	21 (18.9)	15 (25.4)	60 (18.2)	17 (13.9)	45 (24.9)	49 (18.8)	20.6	20.2	20.5	
끊게 됨	16 (14.4)	14 (23.7)	16 (4.8)	20 (16.4)	0 (0.0)	10 (3.8)	7.6	16.6	11.7	
계(100%)	111	59	330	122	181	260	100.0	100.0	100.0	

흡연 청소년들의 32%는 가격이 싼 담배로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가격 인상이후 청소년들이 피우는 담배의 평균 가격은 인상 전 1984원에서 인상 후 2408원으로 그 차이가 담배가격 인상 폭인 500원보다 적은 411원이었다. 보다 싼 담배로 옮겨간 집단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청소년 담배수요의 가격탄력도는 -1.56으로 추정되었으며, 여자가 -1.90으로 남자 -1.34에 비해 더 높았다. 중학생의 가격탄력도는 남녀 각 -1.80, -2.26으로 고등학생 남녀 각 -1.15, -1.6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만의 효과를 고려하여 보정한 가격 탄력도는 -1.23로 추정되었다.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Q1	3.69	3.61	3.65	7.16	4.61	5.78	8.45	5.40	7.26	7.92	4.96	6.56	5.97	4.36	5.24
Q0	5.36	5.75	5.54	8.64	6.76	7.62	10.50	6.91	9.10	9.74	6.83	8.40	7.72	6.35	7.10
dQ	-1.67	-2.14	-1.88	-1.48	-2.15	-1.84	-2.05	-1.51	-1.84	-1.82	-1.87	-1.84	-1.75	-1.99	-1.86
Q	4.53	4.68	4.59	7.90	5.69	6.70	9.48	6.16	8.18	8.83	5.89	7.48	6.85	5.36	6.17
P1	2430	2410	2421	2408	2421	2415	2373	2395	2382	2387	2410	2398	2402	2412	2408
P0	1978	1967	1973	1993	1991	1992	1999	1990	1995	1997	1991	1994	1984	1982	1984
dP	452	443	448	415	430	1211	374	405	1195	391	419	404	418	430	424
P	2204	2189	2197	2201	2206	2203	2186	2193	2189	2192	2200	2196	2193	2197	2196
ε	-1.80	-2.26	-2.01	-0.99	-1.94	-1.43	-1.27	-1.33	-1.28	-1.15	-1.67	-1.34	-1.34	-1.90	-1.56

한편 담배 가격 인상 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흡연 행동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록, 피우는 담배량이 5~10개피인 집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기간이 짧을수록 담배량 감소율이 컸으며 용돈의 액수와는 무관하였다.

결론: 2004년 12월의 담배가격 인상 정책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청소년들은 담배가격 가격 인상 후, 흡연량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11.7%의 청소년이 담배를 끊고, 20.5%의 학생들이 담배를 줄여 피우게 되었다. 흡연량이 증가한 청소년도 있었지만 그 명수는 아주 적었다. 가격인상의 효과는 인상 직후인 2005년 1월에 주로 나타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인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 담배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1.56으로 추정되어, 김원년 연구(2005)에서의 성인의 가격탄력도 -0.4보다 4배정도 큰 것으로 드러나 기존의 외국의 결과들과 일치하였고, 가격 탄력도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년이 낮을수록 혹은 중학생으로 갈수록 더 높았다. 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영향을 보정하면, 가격 탄력도는 -1.23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도 가격 탄력도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년이 낮을수록 혹은 중학생으로 갈수록 더 높지만 그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청소년의 가격 인상후의 흡연 양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량 감소'와 '소비하는 담배 종류 변화(Brand change)'이다. 청소년들은 가격 인상 후 흡연량을 줄임과 동시에 저가 담배로 소비를 옮겨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저가 담배로 옮겨가는 비율은 흡연 청소년의 32%정도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이 남녀 각각 42.7%, 35.4%가 저가 담배로 옮겨가서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이 옮겨갔다. 그리고 피우는 담배량이 많을수록, 평상시 흡연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록 저가 담배로 옮겨갈 확률이 높았다.

소비하는 담배를 바꾸지 않은 집단의 가격 탄력도는 -1.15로 추정되었으며, 소비하는 담배를 바꾼 집단의 가격 탄력도는 -2.54로 추정되었다. 전자는 그대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으나, 후자는 탄력성이 소비하는 담배양 감소와 더불어 얼마나 싼 담배로 옮겨갔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전자는 평균 1.71개피를 줄였으며, 후자는 평균 1.77개피를 줄였으며 줄인 담배 소비량 비율로 계산하면 각 23.08%, 19.18% 감소했다.

흡연량 감소는 저가 담배로 옮겨간 학생일수록, 나이가 어리거나 중학생일수록, 평상시에 흡연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흡연기간이 짧을수록 담배 소비량을 더 많이 줄였다. 피우는 담배양은 5개피이상 10개피 미만의 중간양 흡연자(Midium Smoker)가 5개피 미만흡연자(Light Smoker)나 10개피 이상 흡연자(Heavy Smoker)보다 더 많이 흡연량을 감소시켰다.

kshpa-8

역대 국회에서 처리된 보건의료관계법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

A Positive Analysis on the Health-related Bills in the Past National Assemblies

정순임¹⁾, 한동운^{2),4)}, 문옥륜³⁾, 윤태형⁴⁾

1)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관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목적: 한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정책결정에